

최저시급 7530원... 병장 봉급 2배 올려 40만원으로

국토개발

▲빈집 정비 활성화 =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된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난다.

산업·에너지·자원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인 1인 영세 소상공인에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까지 지원한다.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 신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 기업과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등에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시설자금을 최대 10년간 70% 원 빌려준다. 운전자금은 5년간 10% 원 융자된다.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 기업 집중 육성 =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 산업을 융복합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48개 산업에 연평균 25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향후 5년간 지역 스타 기업 1000개사를 선정, 집중 지원해 20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6000개를 창출한다.

농림·산림·해양·수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한다.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



새해부터 청년들이 외식 창업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확대하고, 외식 경영주 대상 경영역량교육을 강화한다.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춘다. **창상로 일대 상가.**

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휴우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이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 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내년부

청년 외식 창업 경험기회... 훈련시설 전국 5곳으로 확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여권 영문이름 1회 변경 가능·외국인 배우자 등본 표기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업종에 동물생산업,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유치원·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만이 나무병원을 설립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나무의사 양성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영문)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에는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도 주민등록상 표기 =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다른 세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에 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발급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거나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공익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하고, 계약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신고자가 본 손해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신고자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 구조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보훈

▲군장병 봉급 인상 = 1월부터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등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가점의 도움 없이도 병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병사 봉급을 지속 인상해 복무 중 봉

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전역할 때 사회진출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사 자기계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의 맞춤형 자기계발을 위해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어학 학습 교재비, 응시료 등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0개 부대 병사 2000명이다. 군은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는 전 부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 청문 때 병역사항 사전 공개 =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 요청이나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국무총리와 같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 후보자'만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지원 확대 = 1월부터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는 1명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 부터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매일 33만

5000~4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교

▲해외안전지원센터 출범 = 외교부는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해외안전지원센터'를 2월 말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인 해외안전지원센터는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 해외 각종 사건·사고나 재난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공공안전·질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장치',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kg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1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000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외 공간 '폴리 뽕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사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차로제 간소화 =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추월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입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통 사무실 시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시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p> <p>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p> <p>2)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p> <p>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p> <p>4)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3억6천</p> <p>5)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p> <p>6)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p> <p>7)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히딩크호텔)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p> <p>8) 남구 노대동 (주택) 토지 74평 건물 31평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p> <p>9) 화순 도곡 (숙박시설) 토지 617평 건물 856평 도곡스파랜드 1분 감정가 26억5천 → 최저가 9억5천</p> <p>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토지 62평 건물 (전용) 99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p> <p>11) 장성 북이면 (요양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p> <p>12)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광주역 2분 코너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